

2024. 6. 15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6월 14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

서울공예박물관장	김수정	02-6450-7010
교육홍보과장	오문선	02-6450-7070
관련 누리집 (메뉴)	<a href="https://craftmuseum.seoul.go.kr">https://craftmuseum.seoul.go.kr</a> 상단 <프로그램> → <프로그램 신청>	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## 반려견과 함께 공예로 추억 쌓기, 서울공예박물관 펫크닉(Pet+Picnic) 시범운영

- 6.15.(토) 오후 5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에서 반려견과의 동행 ‘펫크닉’ 운영
- 반려견을 위한 양말목 공예 장난감을 만들며 소풍도 함께 즐기는 새활용(업사이클링) 프로그램

- 서울공예박물관(관장 김수정)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공예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‘펫크닉(Pet+Picnic)’ 프로그램을 6.15.(토)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한다. 박물관 앞 야외마당에서 소풍을 즐기고, 새활용(업사이클링) 공예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.
- 먼저 새활용 공예 체험으로 반려견을 위한 양말목 공예 장난감 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. 공예에 필요한 재료를 박물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, 돗자리와 접이식 테이블도 대여해준다. 양말목 장난감 만들기 안내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했다.
  - 양말목 공예는 양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인 양말목을 활용해 새로운 쓰임을 만드는 새활용 활동이다. 반려동물 장난감부터 티코스터, 가방 등 다양한 형태의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.

- 이번 행사는 반려견 15마리를 공예마당으로 초대하여 운영한다. 반려인 1명과 10kg 미만 반려견 1마리가 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. 이번 행사는 시범운영 성격으로, 참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.
  -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에서 접수받은 사전 신청은 뜨거운 열기에 힘입어 조기 마감되었다.
  
- 한편, 이번 <펫크닉>에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6가지 펫티켓(펫+에티켓) ①목줄 착용 및 2m 이내 조절 ②타인과의 거리 유지 ③배변 수거 ④공격성이 강한 반려동물 입마개 착용 ⑤다른 반려동물과 접촉 시 상대 보호자 동의 구하기 ⑥반려동물등록 및 인식표 부착을 지켜야한다.
  
-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“녹음이 짙어지는 초여름, 반려동물과 함께 공예로 동행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‘펫크닉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”며 “서울공예박물관은 앞으로도 ‘모두의 공예, 모두의 박물관’이라는 박물관 슬로건에 맞추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프로그램 포스터, 개요 1부.  
 2. 펫크닉 운영 사진 1부.



○ 서울공예박물관 펫크닉 (SeMoCA Petcnic)

- 신청방법: 홈페이지 온라인 선착순 접수(1인 1견 총 15팀)  
<https://craftmuseum.seoul.go.kr/progrm/view/259>
- 운영기간: 2024.6.15.(토) ※ 우천 시 6.22.(토)로 자동 연기
- 진행시간: 17:00~19:00 (120분)
- 접수기간: 2024.6.1.(토) 16:00 ~ 6.15.(토) 13:00
- 진행장소: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바깥마당 잔디밭
- 세부내용: 반려견을 위한 양말목 공예 장난감 만들기
- 참여대상: 반려동물등록이 되어있는 반려견(10kg 이하)과 견주  
    맹견 참여 불가
- 문의: 02-6450-7074

